

Geopolitical Monitor

류허, 무역협상을 위해 출국.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성

류허 부총리, 무역협상을 위해 출국.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성(Bloomberg, 19.5.7)

- 류허 부총리, 5/9~10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와 회담을 가질 예정
- Bloomberg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관세 부과를 현실화 할 경우 중국도 미국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달
- 중국 환구시보는 미국이 관세를 올린다 해도 무역협상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고 보도
- 반면 인민일보는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 위협에 맞설 것이라고 사실을 통해 밝힘
- 베이징 중국사회과학원 루샹 교수는 중국이 미국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은 미국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여전히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용의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달
-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위협을 끝까지 이어간다면, 회담이 결렬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며 그때는 최악의 상황보다 더 나쁜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

미국-이란 관계 악화 속 이라크에 비공식 방문한 폼페이오(Reuters, 19.5.7)

- 이라크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비공식 일정으로 바그다드를 방문해 이라크 총리를 만났다고 밝힘
- 당초 폼페이오는 독일에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국제 안보 문제를 이유로 이라크를 방문. 이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압박 강화에 따른 것
- 폼페이오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이란의 활동 증가로 인해 이라크의 주권을 우려하고 있다고 발언
- 한편, 지난 5일 불던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항공모함과 B-52 폭격기를 중동에 배치하고 있다고 밝힘. 미국 관리에 따르면 이는 아란의 잠재적 공격 준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

영국 리딩턴 국무조정실장, 유럽 의회 선거 참여 불가피(BBC, FT 19.5.7)

- 데이비드 리딩턴 국무조정실장, 유럽의회 선거에 영국이 참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힘
- 이는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협상안을 5/23일까지 승인할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
- 한편,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6/1일 합의 없는 노딜 브렉시트가 가능함. 이에 영국은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
- 리딩턴은 야당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시간이 부족하며 유럽의회 선거까지 협상을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힘
- 한편, 메이는 아직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할지를 정식 표명하지 않음. 노동당과의 브렉시트안을 놓고 협상 중. 5/5일에는 기고문을 통해 코빈 노동당 당수에게 교섭을 조기에 타결하자고 촉구함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